

한전KPS 임직원 외유성 국외출장 의혹 조사결과

1. 조사 배경

- 국조실은 한전KPS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, 횡령 의혹 등과 관련된 비위 사항을 적발, 우리부에 이첩조사 요구('23. 4. 20.)

2. 조사 결과

- ① (부적절한 국외출장)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 출장 자제를 요청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국외 출장(4차례 7개국) 및 관광지 방문 등 실시
- ② (여비횡령) ○○○ 소속 ○○○ 차장은 여행사(○○○○)와 공모, 출장 직후 여행사로부터 허위 청구서류를 제출받아 총 3회에 걸쳐 8,137천원 여비횡령
- ③ (교통편의 수수) 4회 국외 출장 시 현지 이동목적으로 피감기관인 해외 지사·법인 등에서 제공한 차량(기사 포함)을 이용하는 등 교통편의 수수
- ④ (여비지급 업무처리 부적절) ○○○○○ ○○○ 차장은 ○○○ 차장의 여비지급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부적절하게 여행사에 여비지급

3. 조치 계획

- ① ○○○ : 경고 요구(기관) / 통보(인사자료)
 -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‘기관경고 및 통보(인사자료)’ 조치
- ② ○○○ : 문책 요구(중징계) · 수사의뢰
 - ○○○○○과 공모, 일부 여비횡령(8,137천원), 허위 청구서류 대가로 리베이트(1,365천원) 제공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은 중징계 요구 및 「직원의 업무관련 고발지침」에 따른 수사 의뢰 불가피
- ③ ○○○ : 주의 요구(개인)
- ④ 시정(환수) 요구 · 개선 요구
 - 출장 중 관광 등 부당한 일정에 집행된 여비등에 대해 환수(정산)* 토록 시정 요구 등